

# 한국 근·현대 건축기술사연표(3/3)

Modern Korean Architectural Technology Chronological Table

한동수 |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정송이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부 석사과정

## 대표 건설사의 주택브랜드 변화

우리나라의 주택 브랜드의 기원을 따져본다면 아마도 일제강점기 경성 내외에 주택지를 개발하면서 지명을 취해 붙인 신당정주택지, 명수대주택지, 돈암정주택지 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보다 앞선 것으로는 관공서와 공장의 관사와 사택에 붙여진 철도관사, 조선은행관사, 총독부관사 등의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관공서나 회사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명칭이므로 건설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다. 따라서 건설사와의 관계로 본다면 1930년대 조선토지주식회사의 주택지개발이 그 시원이라고 할 수 있으나 명확하게 브랜드라고까지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유사한 사례로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는 1937년 11월 21일자 동아일보 광고에 등장하는 공덕정쌍룡대(孔德町雙龍臺) 주택사무소의 주택분양과 같은 것이 아닐까 싶다.

해방 이후에는 아파트들이 대량으로 보급되면서 종암아파트, 정동아파트처럼 지역의 이름을 붙인 아파트 브랜드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어서 대형 건설사들의 등장과 더불어 건설회사의 이름이 곧바로 아파트의 브랜드화 되거나 보라매삼성 아파트처럼 지명과 건설회사의 이름을 함께 붙여서 부르는 경향을 보였다. 한때는 순수 한글을 이용한 브랜드도 유행하였으나 최근에는 센트레빌과 같은 영문, 푸르지오 같은 변형된 한글, 래미안 같은 한자, 하늘채 같은 순수한글 등 건설사별로 이미지 전달을 위한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아파트 명칭의 브랜드화 전략은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조치와 상호관계가 있으며 이를 처음으로 도입한 것은 삼성의 래미안이 1999년 상표권 출원을 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건설사의 명칭이 주택브랜드의 강한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가 없다.

## 건축 및 건설 관련 잡지 창간의 변화

잡지는 정보의 교류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인터넷 이전의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그 역할이 매우 컸다. 해방 이전의 대표적인 건축잡지로는 조선건축회가 1922년에 창간한 <조선과 건축>을 들 수 있다. 이 잡지는 해방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건축계의 전반적인 정보 소개, 활동 결과 등을 기록하고 있어 당시의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해방 이후에는 학회를 중심으로 기관지들이 간행되기 시작했으며 본격적인 건축잡지의 성격을 띠고 간행된 것으로는 1966년에 창간된 공간이 있다. 공간은 현재 국내에서 간행되는 건축잡지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건축계에 대한 그 영향력을 매우 크다. 그리고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건축잡지들이 연이어 창간되었으며 이러한 건축잡지들은 외국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줌으로써 건축계의 정보교류에 일익을 담당했다.









그림4. 해방 이전 토지구획사업 보도와 공덕정쌍용대 주택사무소 광고, 그리고 해방 이후 주류를 이룬 건설회사의 이름과 동일한 아파트 명칭들

### 조립식 주택과 관련된 변화

조립식 주택은 양산주택 또는 공업화주택이라고도 부르며 비용절감과 대량공급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건설되는 주택형식이다. 공장에서 규격화된 부재 또는 유니트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현장으로 운반, 조립을 하게 된다. 1960년대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주택부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낳았으며 장기간에 걸친 주택난을 해결하고자 1971년 대한주택공사와 일본 대성건설이 공동으로 출자한 한성프리패브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조립식 주택

이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초기의 조립식 주택은 무리한 공사기간의 단축, 기술력의 부족 등으로 부실공사의 문제점을 노출하였으나 이후 다수의 민간 건설회사들이 참여를 하면서 기술보완의 시기를 거치게 된다. 특히 1990년대 민간 건설회사에서 독자적인 연구소를 설립하고 외국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발전을 거듭하였다. 이후 시공방법의 다양화와 시공방법 및 자재를 기반으로 한 용어의 증가로 조립식 주택의 용어는 점차 자취를 감추고 PC 혹은 아파트라는 용어로 전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 향후 본 연표의 활용과 보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건축기술사라고 하는 성격의 본 연표는 한국건축계의 흐름 속에서 관련 기관들 스스로의 위상과 역할이 어떠한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오늘날은 디지털의 시대이므로 본 연표를 회사나 관련 학회, 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제공하여 연동시켜 사회적으로 건축기술사의 중요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내용의 보완이나 수정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 완성된 연표는 여전히 완벽한 내용을 갖추고 있지 않다. 지속적인 자료의 수집을 통해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향후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은 크게 다음의 세가지 측면이다. 첫째는 세계건축계의 흐름과 본 연표를 연동시키기 위해서 세계건축기술계의 동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삽입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각종 기술력이 반영된 국외의 실제 사례들을 수집하여 국내의 실제 사례와 대비시켜 보여주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자료 취득의 한계로 미진한 상태로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일제강점기 건축기술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가 활발해져야 가능한 것으로 학계와 연구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